

(종 산 시 책)

조속·내생성

품종 집중재배유도

—◎ 올해 食糧增産計劃은 이렇다

농수산부 미산과장

서 정 선

얼마전 인구문제를 다루는 T.V. 방송에서 굶주린 어린이들이 손을 벌리고 먹을 것을 기다리는 애처로운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굶어죽는 인구가 연간 약 5천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대소 곡물 수출금지라는 식량무기화를 내세운 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현실과 불안정한 세계곡물시장등 안보적 차원 이외에도 미곡도입에 따른 외화 절약이라

는 측면과 약 20%가 넘는 농업인구의 주요 소득원이 쌀이며 이 소득이 다시 공산품의 수요를 창출하여 내수 증대로 안정된 공업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등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는 작년도에 모내기때의 극심한 가뭄과 문고병·벼멸구 등의 병충해, 등숙기의 잦은 강우등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곡자급을 이룩한 중요하고도 알찬 한해였다. 여기서 작년한해의 영농성과를 돌이켜 보면서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영농계획하에 주곡자급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며

◇ 올해 食糧增産計劃은 이렇다 ◇

올해 주곡자급을 위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영농성과 분석**

**가. 총 평**

작년의 영농을 철저히 분석해서 잘된 점은 확대 실천하고 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여 올해의 영농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조기정밀예찰로 방제효과 커**

작년도에는 모내기 중반까지의 가

뭍과 7월과 9월 이후에는 예년보다 기온은 낮고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 시간이 부족했으며, 고온다습과 계절풍에 의한 벼멸구의 잦은 비래로 극심한 벼멸구등 병충해가 발생했으나 조기모내기 및 벼벼 작은단 묶어 세워 말리기등으로 일조시간 부족을 극복했으며 병충해는 조기정밀 예찰로 사전방제에 주력하면서 순회예찰 지도를 강화하여 적기에 방제하였고, 모내기때의 가뭄은 사전 논물가두기의 실천으로 피해없이 가뭄을 극복한 점등이 풍년 농사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보리도 적기파종과 정밀한 관리로 풍년을 거두어 주곡의 자급을 앞당겨 실현한 뜻깊은 한 해였다.

**나. 식량생산 실적**

	'82(A)		'83(B)		대 비 (B/A)
	천	%	천	%	
합 계	6,805	48,001	7,134	50,321	105%
미 곡	5,175	35,938	5,404	37,529	104
맥 류	820	5,941	931	6,744	114
(대 나 맥)	(670)	(4,851)	(736)	(5,334)	(110)
두 류	295	2,141	277	2,017	94
(대 두)	(233)	(1,729)	(226)	(1,677)	(97)
서 류	369	2,888	407	3,176	110
(감 자)	(108)	(881)	(94)	(767)	(87)
잡 곡	146	1,093	115	855	78
(옥 수 수)	(117)	(867)	(101)	(745)	(86)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 다. 풍년농사의 성공요인

### 1. 적지·적품종의 배치

알맞은 곳에 알맞은 우량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불시출수를 방지('82 : 1,464 ha → '83 : 2,3ha)했으며 비교적 많은 면적에 다수성인 통일계 품종이 재배 되었던 점등을 들 수 있겠다.

### 2. 취약지 영농의 획기적 개선

못자리 설치때부터 치밀한 영농계획하에 시한영농을 실시한 결과 6월 내에 계획된 면적에 모내기를 완료했으며, 전필지 모내기로 모내기 면적이 '82대비 44千ha가 증가했고 개선된 규격못줄을 조기에 공급하여 평당 모 포기수도 크게 늘어 났던 점과('82 : 77 → '83 : 83주) 친수담에 대한 관리철저로 사전에 논물가두기를 확대 실시하여 모내기 때의 극심한

	'83	'82
모내기 10일 앞 당기	6월중에 계획면적완료	
전필지 모내기	1,220천ha	1,176천ha
평당 모포기수	83	77주
논물 가두기	254	205천ha

### 3. 다수확 영농기술의 보급

쌀 다수확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27천명) 이들의 영농기술을 농한기를 이용한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해 인근농가에 확대 보급했으며(4,260회 : 424천명) 병해충의 조기정밀 예찰 및 순회관찰의 강화로 사전 적기 방제에 주력했으며 아울러 안정적 다수확이 될 수 있도록 농토배양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당면 영농추진을 위해 식량증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므로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었다.

## 라. 시정개선을 요하는 점

- 기계이양 육묘상자의 공급 지연과 불량 인력이앙기의 유통(372대)
- 일부 농약의 지역간 균형재고 유지의 미흡
- 영농기술지도와 증자관리의 미흡으로 일부 지역에서 병해의 발아 불량(부안 : 삼강벼, 영풍벼)
- 병충해 방제에 대한 기술지도 계몽이 소홀했던 점
- 1모작담에 2모작용 복합비료 사용으로 인한 비료의 손실과 맥류의

◇ 올해 食糧增産計劃은 이렇다 ◇

생육재생기에 추비분사가 미이행

○ 품종에 있어서도 진주벼에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는등 내병성에 약한 품종의 보급

○ 논에서 잡수 및 이형주 발생이 많았던 점등을 들수 있으며 이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일들은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북부 지역에는 섭씨 영하 50도의 한파가 몰아치고 유럽중부에서는 100년만에 계절적으로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22도를 기록했으며 호주에서는 년 4년간 혹심한 가뭄속에 시달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과 금년 1월중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기상재해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냉해 가뭄등 기상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벼 품종선택에 있어서도 농민 자육에 맡기므로해서 병충해에 약한 일반계 품종을 재배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기상재해와 병충해 방제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올해의 식량증산 계획**

**가. 올해의 영농여건**

최근들어 세계 곳곳에서 기상의 이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

<우리나라의 기상재해>

	냉 해	가 뭄	풍 수 해	병 충 해
발 생 주 기	4	5	4	4
발 생 년 도	'72, '76, '80	'73, '77, '82	'70, '74, '79	'72, '76, '80

**나. '84식량 증산 목표량**

	'84 계 획 (A)		'83 실 적 (B)		대 비 (A/B)
	천 %	천 석	천 %	천 석	
합 계	7,275	51,350	7,134	50,321	102%
미 곡	5,472	38,000	5,404	37,529	101
맥 류	896	6,493	931	6,744	96
(대 나 맥)	(751)	(5,440)	(736)	(5,334)	(102)
두 류	333	2,429	277	2,017	120
(대 두)	(272)	(2,013)	(226)	(1,677)	(120)

서 류	421	3,293	407	3,176	104
(감 자)	(113)	(924)	(94)	(767)	(120)
잡 곡	153	1,135	115	855	133
(옥 수 수)	(136)	(1,004)	(101)	(745)	(135)

### 다. 중점 시책

#### 품종선택 자율화에 따른 적지·적품종 계도 강화

벼 품종의 선택은 자율의사에 맡기면서 품종의 홍보·계몽·지도 등을 통해 적지·적품종이 배치 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려되는 각종 재해발생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농작물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취약지 영농을 중점 개선하여 전필지의 소출을 높이고 병충해 조기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가 될수 있도록 하며 착실한 농토 배양 사업의 추진 및 전필지 모내기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신종 복합비료를 개발 보급하여 3요소의 균형시비를 기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과 우량 농기계 보급으로 영농의 기계화를 성실히 추진하면서 전작물에 대해서는 지역별 적응작물을 재배토록 하면서 수요에 따른 안전 생산으로 수급의 원활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 ○ 미곡 증산

#### <미곡 증산계획>

	면적	단수	목 표 량	
			천 %	천 석
합 계	천ha 1,212.0	kg 452	5,472.0	38,000
서울	1.5	385	5.8	40
부산	3.0	405	12.2	85
대구	3.6	405	14.5	101
인천	1.8	415	7.5	52
경기	175.4	430	754.3	5,238
강원	55.7	395	220.0	1,528
충북	77.6	460	357.0	2,479
충남	175.0	475	831.3	5,773
전북	166.7	475	791.9	5,499
전남	207.4	455	943.9	6,555
경북	191.1	450	860.1	5,973
경남	152.2	440	669.9	4,652
제주	1.0	355	3.6	25

### ○ 주요 시책 방향

#### 1. 완벽한 재해대책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재해 요인별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재해상습지를 집중 관리하므로서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올해 食糧增産計劃은 이렇다 ◇

냉 해 대 책

<냉해 상습지 집중관리>

계	산간지	냉조풍지 (冷潮風地)	지하수 이용지
157千ha	54	38	65

○ 조숙 내냉성 품종을 집중배치: 6千%

○ 보온 육묘용 비닐하우스 확대 설치: 240평

○ 못자리에 규산질비료 및 입제 농약 전면 사용: 69천ha

○ 물관리 개선과 수온상승시설 이용 확대: 118천중

○ 냉해지역 전용 복합비료 개발 공급: 20천%

○ 모내기 10일 앞당기기 적극추진

○ 종합 농토배양과 균형시비 적극지도

가 물 대 책

<가물대책 장비점검 강화>

저 수 지	18,600개소
양 수 장	4,500 "
취입복(取入淤)	20,000 "
집수암거(集水暗渠)	4,700 "
양 수 장 비	34,700 대
관 정 등	173,500개소

○ 천수답과 수리불안전답의 논물 가두기: 364千ha

○ 저수지 물넘이 돌우기로 저수량증대

○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 조기 완료

소형관정	기계관정	이양	등수	식장	송수호스
15천공	400공	200지구			200km

○ 물 절약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강화

계	집 못자리	단 밭못자리	예 비 못자리
3,800ha	800	1,500	1,500

풍 수 해 대 책

<피해발생 상황>

	'81	'82	'83
계	227천ha	59	85
수 해	127	39	5
풍 해	100	20	80

○ 수해상습지를 카드화하여 집중관리: 2,442지구

○ 수방자체 비축과 수리시설물의 점검정비 강화

○ 배수갑문의 조절방법을 사전교육

○ 침수지역의 조기물빼기와 병충해 방제 철저

— 침수지역: 최소한 벼잎끝이 수면에 노출될수 있도록 배수촉진

— 퇴수지역: 도열병 백엽고병 신속방제

○ 규산질비료시용 방풍망시설등  
벼쓰러짐 방지대책 사전강구

○ 대파용 종자 사전준비 : 조, 벼  
밀, 쌀, 채소등

또한 이들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하여 사전에 영농자재에 대한  
점점정비를 강화하고 긴급시에 대비  
한 방제 체제를 정비하는등 모든 시  
책을 재해가 있다는 가정하에 추진  
할 계획이다.

## 2. 건묘육성과 평당주수 확보 및 적기에 전필지 모내기에 주력

지대별 모작별로 못자리 설치적기를  
부락별로 통보하고 집단못자리  
및 밭못자리를 확대 설치하여 못자리  
설치면적을 확대하고(50→60m<sup>2</sup>)  
전면적 보은못자리 설치를 권장하  
여 “못자리농사가 반농사”라는 옛말  
처럼 튼튼한 묘기르기에 온 정성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전못자리에 임제농약 살포

또한 모든 못자리에 규산질비료와  
임제농약을 시용토록 하고 통풍순화  
작업을 중점지도하며 재해를 대비한  
기관별 단계별로 예비 못자리 설치  
(1,500ha)를 의무화 할것이다. 한  
편 적정 모내기 밀도를 확보하기 위

해 취약지구에 규격못줄을 집중적으  
로 공급하고 현재 농가가 가지고 있  
는 불량못줄을 정비토록하고 모내기  
때에 주인이 못줄잡기와 도급모내기  
때 평당모내기 포기수를 협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 취약지에 규격못줄 집중공급

적기에 전필지 모내기를 위해 벼  
앞그루 재배논의 작부유형을 조사하  
여 못자리 설치를 확인독려하고 모  
내기 지시서를 발부하며 다년생 식  
물을 무단히 재배한 논은 환원조치  
를 강화하는등 논에는 벼 이외의 작  
물재배를 적극 제한하여 모내기 절  
대면적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 3. 취약지 영농을 중점개선 하여 소출을 높은 수준으 로 끌어올림

<높은 수량으로 평준화>

	'83	'84
수량 낮은 논	350	→450kg/10a
일발 논	450	→500 "

2모작 논은 앞작물을 일찍 수확하  
여 적기에 모내기를 하도록 기술지  
도를 강화하고 늦모내기 논에 대해  
서는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  
며 출입경작자 임차농 등에서는 성

◇ 올해 食糧增産計劃은 이렇다 ◇

실영농 서한을 발송하여 적기 모내기  
기를 유도하고 소출이 낮은 논에 대  
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농토배

양 환경개선 경종법개선등 종합개량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이다.

개 선 방 법	
늦 모 내 기 논	— 모내기 시한설정 마을단위 제시 — 앞작물 조기수확과 적기모내기 지도 — 모내기 농촌 일손돕기 운동진개
포기수 미확보 논	— 취약지구 규격못줄 중점 보내기 — 농가보유 불량못줄 점진정비강화 — 청부 모내기 포기수 확보협약 유도
수 량 낮 은 논	— 수량낮은 요인조사 — 요인별 종합개량 방법 적극지도

#### 4. 병충해 방제의 철저

○ 방제 계획

		방 제 계 획			방제비율 %
		계	묘 판	본 답	
합 계		10,614 천ha	199	10,415	876
병	소 계	6,385	117	6,268	527
	도 열 병	4,054	82	3,972	335
	문 고 병	1,776	—	1,776	146
	백 열 고 병	547	27	520	45
	기 타	8	8	—	1
충	소 계	4,229	82	4,147	349
	멸 구 류	1,881	82	1,779	155
	(벼 멸 구)	(1,213)	(—)	(1,213)	(100)
	이 화 명 충	2,348	—	2,348	194
(이 화 명 충)	(1,462)	(—)	(1,462)	(121)	



○ 종합방제 체제의 정착

작년도에 극성을 부렸던 문고병, 벼멸구 등 병충해를 방제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충해 발생상습지를 집중 관리하여 내병충성 품종을 우선 공급하고 농토배양·환경개선·균형시비 등 병충해 종합방제 체제를 확립하며 예찰요원의 전문화와 위촉예찰요원의 활용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예방우주의 방제를 꾀하고 기존의 공동, 용역 방제단 등 방제조직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충해 상습지 중점개선>

	'81	'82	'83
개소수(천개)	6	4	3
면적(천ha)	35	21	13

○ 병충해 전염원 초기박멸

월동병해충을 정밀예찰하고 논·밭두렁 불태우기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초기에 전염원을 없애며 종자소독과 못자리에 규산질비료와 입제농약을 사용토록하여 못자리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농약제조 회사와 자매결연을 통해 대단위 종합방제 시범포를 설치(16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 방제기술의 제고

병충해의 적기방제와 생육시기별 농약 희석농도를 준수하여 충분한 량의 농약을 살포하도록 대농민 교육을 강화하고 강우시 전착제의 사용과 병충별 특성에 의한 방제방법을 지도하여 방제효과를 높일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 교육과 방제복 및 개량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고 농약민병회수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제의 비축을 확대하고 농민이 알기 쉽도록 표기방법을 계속 개선하며 제조회사의 자체검사제도강화와 사후관리 시험실시 등 농약관리와 공급제도의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불량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종합 농토배양으로 지력증진

○ 사업 계획

	별갈 질기	심경	녹재 비배	집객	단토	퇴 종	비 산	토 양 개 량 제		
								석회	규산질	석고
합 계	천ha 700.0	700.0	50.0	66.7	33,000	천 $\frac{M}{T}$ 265.0	300.0	52.8		
서울	1.2	1.2	—	—	100	0.1	0.2	—		

◇ 올해 食糧增産計劃은 이렇다 ◇

부 산	1.8	1.8	—	—	100	0.5	0.9	—
대 구	2.1	2.1	—	—	140	0.5	0.8	—
인 천	1.8	1.8	—	—	60	0.3	0.5	—
경 기	105.0	105.0	9.3	8.7	4,540	25.4	40.3	15.1
강 원	30.0	30.0	4.2	3.5	2,600	14.6	15.8	—
충 북	50.0	50.0	3.6	7.0	3,000	17.9	18.5	—
충 남	103.0	103.0	6.9	8.5	4,400	36.0	41.3	14.2
전 북	100.0	100.0	6.0	8.0	3,600	36.1	41.5	4.9
전 남	110.0	110.0	6.4	11.0	4,800	57.1	51.0	16.2
경 북	113.0	113.0	6.9	11.0	6,060	44.5	49.5	—
경 남	82.0	82.0	6.6	9.0	3,200	27.9	39.7	2.4
제 주	0.1	0.1	0.1	—	400	4.1	—	—

<증산왕의 논의 땅심>

	깊이갈이	유기물	규산질	양분보유능력
증 산 왕 의 논	18cm	3.0%	134ppm	20me
보 통 논	10	2.6	82	10

○ 농토배양사업의 정착

앞 표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 다수확의 요인은 농토배양으로 지력을 높인 데 있으므로 농토배양사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유기물사용액토·심경·개량제 시용 등에 중점을 두고 10개년 계획에 의거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벗짚 절단기 확대공급

농토배양의 촉진을 위해 다수확 선도농가의 기술을 인근농가에 확대 보급하며 농토배양의 선도부락을 지

정육성(3천개부락) 할 것이며 논에 벗짚 환원을 위한 벗짚절단기를 확대 공급하고 또한 경지 이용도 재고와 농한기 유휴노동력 이용을 결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여 논 밭그루 사료 및 녹비작물의 재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모래논에 집단객토사업을 위하여 300억원의 객토 사업자금을 3년 3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하는 한편 소출이 낮은 습담·염해담·중점담·특수성분 결핍담 등은 토양 유형별로 종합개량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변화하고 자율생산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 6. 밭작물 증산

### <보리>

우리나라의 밭작물중 보리는 주종을 이뤄왔으나 국민식생활의 변화로 소비가 계속 감소되어 82년도에는 1인당 연간 14kg에 이르렀고 지난해에 674만석의 보리쌀이 생산되어 자급선을 넘었다. 앞으로도 보리의 식량소비는 더 줄어들것으로 예측되어 주정원료·사료등으로 소비될다

### 맥주보리는 확대생산 유도

한편 맥주보리는 급증하는 수요에 생산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계약재배로 확대생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보리는 대단위단지의 조성과 성립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꾀해 나갈 것이다.

### <맥류 생산 계획>

재 배 면 적	생 산 목 표 량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351 천ha	6,493.2천석	1,766.8	3,683.0	1,053.4

### <기타 밭작물 증산 생산계획>

두 류		서 류		잡 곡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266.0천ha	333.4천%	82.0천ha	1,559.9천%	50.1천ha	152.7천%

콩은 수입과 연계한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절대증산을 꾀할 것이며 계약재배 품목을 콩에서 콩, 팥, 녹두로 확대할 것이다.

### 가을감자 위주로 주년 생산

서류중 감자는 봄감자 위주에서 여름감자와 가을감자재배를 확대하

는등 주년생산체계를 정착시키고 감자의 가공법개발과 감자식품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가공업체와의 계약생산을 유도하는등 증산을 꾀하고 고구마는 농민이 출하하는 전량의 수매를 보장하여 증산을 기할 것이다.

잡곡중 옥수수 재배면적을 '83년의 28천ha에서 33천ha로 늘리고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단위수량을 높이는등 증산을 기하고 기타잡곡은 현재의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재배기술의 개량보급으로 단위당 수량제고에 주력할 것이다.

### 작업 예고제 실시로

### 유휴지 감소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남는 일손을 복합영농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기계영농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작업의 예고제를 실현하여 적기정밀농작업을 기하고 노는 땅의 생산화운동을 전개하여 좁은 농토의 이용율을 높이는 등 작부체계 개선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 농업은 경제발전의 근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곡자급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금년도 주요 시책을 언급해보았다.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이 우리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고 있으나 안정 속에서의 공업발전은 농업발전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날로 심화되는 보호무역의 장벽과 불안정한 국제경제속에서 내수의 증대는 공업발전의 초석이 되고 약 20%가 넘는 농업인구가 공업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의 자급과 힘들여 벌어들인 외화를 절약한다는 점등에서 볼때 주곡의 자급은 비교우위에 앞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주곡의 자급은 어느 한 사람의 힘 또는 어느 한부분의 발전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량품종을 열심히 육성하고 농토배양,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선등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 기반조성에 계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재배기술의 개발보급등 1천만 농민과 7만 농수산공직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때 이뤄진다고 본다.

다같이 힘을 모아 선진조국을 이룩하고 주곡자급의 정착을 위한 기틀진 육도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민족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여 금년도도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룰것을 굳게 다짐한다. ㊦